

## 국시를 앞둔 응급구조과 학생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정지연<sup>1\*</sup>, 윤종근<sup>2</sup>, 오진환<sup>3</sup>

<sup>1</sup>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sup>2</sup>동강대학 응급구조학과, <sup>3</sup>수원과학대학 간호과

### An Analysis Study on stress factor of Emergency medical Students during preparing Examination for Korea Registered licence

Ji-Yeon Jung<sup>1\*</sup>, Jong-Geun Yun<sup>2</sup> and Jin-hwan, Oh<sup>3</sup>

<sup>1</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How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Dongkang College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국가고시를 앞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 및 대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K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3학년 학생 87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문항, 스트레스 요인 20문항, 스트레스 적응방법 34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 통계, t-test,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로는 교과과정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물이 3.39, 공부환경 3.37, 시험 3.35, 취업 3.04 순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3.36이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적응방법의 전체 평균은 2.85이며, 장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3.14, 단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2.55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적응방법 중 장기적 적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 $t=4.366, p=.040$ ), 성적( $F=2.527, p=.047$ )이었으며 스트레스 영역별 요인과 스트레스 정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시험( $r=.809, p=.000$ ), 교과과정( $r=.657, p=.000$ ), 과제( $r=.798, p=.000$ ), 공부환경( $r=.738, p=.000$ ), 취업( $r=.619, p=.000$ )에서 유의하게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관리의 효율적인 대처방안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on stresses to Emergency Rescue students' who have national examination ahead.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87 3rd-degree-Emergency Rescue students from K city were selected.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SPSS PC program for descriptive data,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In result, stress factors are categorized by curriculum( $3.67\pm.74$ ), homework ( $3.39\pm.93$ ), environment( $3.37\pm.93$ ), examination( $3.35\pm.74$ ), employment( $3.04\pm.75$ ) and total mean was  $3.36(\pm.59)$ . The way to adjust stresses characterized by long-term( $3.14\pm.54$ ) and short-term( $2.55\pm.44$ ), also the short-term is used more than the other way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ress factor were gender( $t=4.466, p=.040$ ), grade( $F=2.53, p=.047$ ). In the correlations between categories of the stress factor and stress degree, the examination( $r=.81, p=.000$ ), curriculum( $r=.66, p=.000$ ), homework( $r=.80, p=.000$ ), environment ( $r=.74, p=.000$ ), and employment( $r=.62, p=.000$ ) were significant. In conclusion, it is needed to study for managing stress according to various subjects.

**Key Word** : Emergency medical, Students, Korea Registered licence, stress

본 논문은 2012년 호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교신저자 : 정지연(cjy504@howon.ac.kr)

접수일 11년 10월 18일 수정일 (1차 11년 11월 15일, 2차 11년 12월 12일, 3차 11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12년 01월 05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생의 일부이며, 인간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자극 요인에 대한 전체의 불특정 반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며 질병도 유발하게 된다[1].

스트레스는 현대인 모두가 생활 과정 중에서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또한 어느 정도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2].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3],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주로 학업과 진로문제,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 정신적 증상으로 발현되는데[5], 취직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이 심리적 좌절감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장장애, 우울감 및 불안증세, 학습습득 능력의 감소,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질병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6,7]. 특히 국가고시 준비생의 스트레스는 가족 및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본인들의 수험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서적·심리적 측면으로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스트레스를 중재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정신적 어려움과 혼란을 치료할 당위성이 있다[8].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강정희[9]의 연구에서 간호과 학생들은 졸업 전에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루면서 잦은 모의고사, 시험에 대한 정보부족, 학교수업과 임상실습의 병행으로 체력적 부담, 공부 시간의 부족, 많은 분량의 과제물, 교과과정 외의 특강 등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며 나름대로의 적응방법을 시도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적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 하여 오히려 심각한 건강문제를 호소하거나 휴학 또는 국가고시 응시를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하였다[9]. 더구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병행하고 있어 그 스트레스는 간호과 학생들보다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켜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가고시를 앞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K광역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3학년 92명에게 질문지를 배분한 후 작성하고 회수된 설문지 87부를 자료로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강정희[9]의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문항,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PSI(Psychiatric symptom index) 28문항 중 20문항, Bell의 스트레스 적응방법 34문항,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45이었다.

### 2.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 t-test,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및 논의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1.7%, 여자가 48.3%였으며, 종교는 기타 46.0%, 기독교 33.3%, 불교 14.9%, 천주교 5.7% 순이었다. 전공과 선택동기는 '취업 전망'이 67.8%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과 흥미' 20.7%, '입학식 성적', '교사의 권유'가 4.6%로 같았으며, '경제사정' 2.3% 순이었다. 응급구조사 만족도는 '만족'이 64.4%, '보통' 20.7%

순으로 나타났으며, 졸업후 취업 전망은 ‘밝다’ 57.5%, ‘보통이다’ 29.9%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3.8이상’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3.5이상 3.8미만’이 26.4%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62.1%, 통학시간은 ‘30분 미만’이 51.7%, 현재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9.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일반적 특성		실수	백분율
성별	남	45	51.7
	여	42	48.3
종교	불교	13	14.9
	기독교	29	33.3
	천주교	5	5.7
	기타	40	46.0
졸업학교	인문고	74	85.1
	전문고(실업고)	11	12.6
	검정고시	1	1.1
	기타	1	1.1
전공과 선택동기	적성과 흥미	18	20.7
	교사의 권유	4	4.6
	입학시 성적	4	4.6
	취업전망	59	67.8
	경제사정	2	2.3
응급구조사 만족도	매우만족	8	9.2
	만족	56	64.4
	보통	18	20.7
	불만족	5	5.7
졸업후 취업 전망	매우 밝다	9	10.3
	밝다	50	57.5
	보통이다	26	29.9
	어둡다	2	2.3
성적	3.8이상	43	49.4
	3.5이상 3.8미만	23	26.4
성적	3.0이상 3.5미만	12	13.8
	2.5이상 3.0미만	6	6.9
거주 형태	자택	54	62.1
	하숙	1	1.1
	자취	27	31.0
	기숙사	5	5.7
부모 생존 여부	부모생존	79	90.8
	부모는 모만 생존	3	3.4
	부모이혼 별거	5	5.7
현재 건강상태	매우건강	13	14.9
	건강	43	49.4
	보통	22	25.3
	약함	6	6.9
	매우약함	3	3.4

### 3.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별 점수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영역별로는 교과과정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물이 3.39, 공부환경 3.37, 시험 3.35, 취업 3.04순으로 나타

났다. 각 영역 속에 포함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살펴 보면, 시험 관련에서는 ‘모의고사를 너무 자주 보아서’가 3.73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중간, 기말 시험과 모의고사 기간이 겹쳐서’ 3.58, ‘모의고사 점수를 공개하여’ 3.45, ‘국가고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가 2.62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에서는 ‘교양 과목이 적어서’가 4.24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수업과 임상실습의 병행으로’ 3.85, ‘수업 시수가 너무 많아서’ 3.77, ‘정규 수업외의 방학 중 국가고시 대비 특강’ 3.62, ‘휴식시간이 없어 연속적으로 짜여진 수업 시간표’ 3.39순이었으며, ‘강제성을 띤 야간 자율학습’이 3.18로 가장 낮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과제물에서는 ‘레포트 분량이 너무 많아서’가 3.51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과제물이 국가고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한다’가 3.27로 나타났다. 공부환경에서는 ‘교실과 도서관이 냉난방이 안되어’가 3.63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급내 경쟁적 분위기로 인해’가 3.56로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가 3.26으로 나타났다.

[표 2] 스트레스 요인별 점수  
[Table 2] Stress scores according to factors

스트레스 요인		평균	표준 편차
시험	모의고사를 너무 자주 보아서	3.73	.86
	중간, 기말 시험과 모의고사 기간이 겹쳐서	3.58	.95
	모의고사 점수를 공개하여	3.45	1.18
	국가고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2.62	1.08
	전체	3.35	.74
교과 과정	휴식시간이 없어 연속적으로 짜여진 수업 시간표	3.39	1.12
	강제성을 띤 야간 자율학습	3.18	1.27
	정규 수업과의 방학 중 국가고시 대비 특강	3.62	.91
	수업시수가 너무 많아서	3.77	.88
	교양과목이 적어서	4.24	2.10
과제물	학교 수업과 실습의 병행으로	3.85	.97
	전체	3.67	.74
	레포트 분량이 너무 많아서	3.51	1.17
공부 환경	과제물이 국가고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	3.27	1.11
	전체	3.39	.93
	도서관의 부족	3.16	1.20
	교실과 도서관이 냉, 난방이 안되어	3.63	1.22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3.26	1.39
취업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	3.26	1.39
	학급내 경쟁적 분위기로 인해	3.56	.99
	전체	3.37	.93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2.72	1.05
	성적과 관련된 자신감 부족으로	2.87	1.02
총 점	의외와 관련된 열등감	3.52	1.00
	전체	3.04	.75
	전체	3.36	.59

### 3.3 대상자의 요인별 스트레스 적응방법

대상자의 요인별 스트레스 적응방법 순위별 점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요인별 스트레스 적응방법 순위별 점수  
[Table 3] Scores of coping methods according to factors

적응방법 순위		평균	표준 편차
장기 적응 방법	1 다른사람과 그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3.49	.95
	2 조용히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3.43	.83
	3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3.39	.85
	4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대책을 생각한다	3.32	.82
	5 운동(춤, 스포츠)등으로 해소한다	3.26	1.13
	6 과거 경험을 살려서 해결한다	3.05	.88
	7 현재 이해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행동을 취한다	3.01	.75
	8 기도를 한다	2.19	1.12
단기 적응 방법	1 음악을 듣는다	3.94	.91
	2 잠넘이나 공상에 잠긴다	3.54	1.05
	3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3.52	.97
	4 잠을 더 많이 잔다	3.34	1.06
	5 그 문제를 잊기위해 다른 일에 몰두 한다	3.06	1.08
	6 영화, 연극, 운동경기를 구경하러 간다	2.97	1.08
	7 꼭 참는다	2.97	1.10
	8 술을 마신다	2.94	1.27
	9 드라이브나 여행을 간다	2.90	1.23
	10 낚시를 한다	2.75	1.22
	11 무작정 걷는다	2.72	1.17
	12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른다	2.72	1.28
	13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대비한다	2.70	1.15
	14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다	2.65	1.30
	15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2.65	.93
	16 그 문제에 대해 과장되게 큰 소리로 떠벌린다	2.16	1.03
	17 일어섰다 앉았다 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	2.14	.98
	18 운다	2.13	1.29
	19 머리를 긁거나 탁자를 두드리거나 손바작을 비빈다	2.03	1.02
	20 화장을 하거나 미장원에 간다	1.94	.95
	21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	1.88	.90
	22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1.86	.86
	23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78	.95
	24 물건을 닦치는데로 산다	1.75	.90
	25 약을 먹는다	1.70	.95
	26 접을 보러 간다	1.59	.70
총 점		2.85	.39

대상자의 스트레스 적응방법은 전체 평균 2.85이며, 장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3.14, 단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2.55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적응방법 중 장기적 적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문항별로는 장기적응방법 중 ‘다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3.49)가 가장 높았으며, ‘조용히 앉아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3.43),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3.39)순이었으며, 단기적응방법은 ‘음악을 듣는다’(3.94), ‘잠넘이나 공상에 잠긴다’(3.54), ‘생긴 문제를 좋은 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3.52)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표 4와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에 따라서 남자가 3.72점으로 여자 3.62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4.366, p=.040$ ). 성적이 2.5미만인 학생이 스트레스를 4.66점으로 가장 높게 받고 있었으며 2.5이상 3.0미만이 2.66점으로 가장 낮았다( $F=2.527, p=.047$ ).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Table 4] Stress scor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스트레스 정도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or t	p
성별	남	3.72	.88	4.366	.040
	여	3.62	.55		
종교	불교	3.54	.50	1.509	.218
	기독교	3.33	.68		
	천주교	2.89	.43		
	기타	3.39	.55		
교	인문고	3.34	.58	.171	.915
	전문고(실업고)	3.46	.73		
	검정고시	3.48	.		
	기타	3.57	.		
선택 동기	적성과 흥미	3.60	.43	1.670	.165
	교사의 권유	2.83	.32		
	입학시 성적	3.40	.67		
	취업전망	3.32	.62		
	경제사정	3.43	.96		
만족도	매우만족	3.75	.55	2.641	.055
	만족	3.41	.56		
	보통	3.09	.65		
	불만족	3.23	.44		
취업 전망	매우 밝다	3.01	.44	1.606	.194
	밝다	3.44	.56		
	보통이다	3.37	.69		
	어둡다	3.00	.04		
성적	3.8이상	3.44	.85	2.527	.047
	3.5이상 3.8미만	3.34	.88		
	3.0이상 3.5미만	3.37	1.13		
	2.5이상 3.0미만	2.66	.87		
	2.5미만	4.66	.57		

거주 형태	자택	3.42	.59	1.294	.282
	하숙	4.05	.		
	자취	3.28	.58		
	기숙사	3.04	.60		
부모	부모생존	3.35	.59	.300	.742
	부모는 모만 생존	3.50	.53		
	부모이혼 별거	3.53	.70		
건강	매우건강	3.47	.66	1.067	.378
	건강	3.45	.56		
	보통	3.20	.55		
	약함	3.11	.67		
	매우약함	3.23	.88		

### 3.5 스트레스 영역별 요인과 적응방법과의 관계

스트레스 영역별 요인과 적응방법과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방법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619, p=.000$ )가 있었다. 스트레스 요인중 교과과정( $r=.468, p=.000$ ), 취업요인( $r=.232, p=.030$ )이 장기적 적응방법과 유의한 상관관계 있었고, 과제물( $r=.515, p=.000$ )과, 공부환경( $r=.219, p=.042$ )이 단기적 적응방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스트레스 영역별 요인과 적응방법과의 관계  
[Table 5] Correlation of stress main cause and coping methods

구분	적응방법			
	장기적응		단기적응	
	r	p	r	p
시험	.059	.585	-.129	.235
교과과정	.468	.000**	.004	.971
과제	.132	.224	.515	.000**
공부환경	.104	.336	.219	.042*
취업	.232	.030*	-.046	.675
전체	r=.619		p=.000**	

(\* $p<.05$ , \*\* $p<.01$ )

## 4. 논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로는 교과과정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과제물이 3.39, 공부환경 3.37, 시험 3.35, 취업 3.04순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3.36이었다. 간호학과를 대상으로 한 강정희[9]의 연구에서도 교과과정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물에서의 스트레스는 최현영[10]의 연구에서 4.29, 하나선등[11]의 연구에서는 3.9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교과과정과 그로 인한 과제물이 주 스트레스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각 영역속에 포함되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시험관련에서는 ‘모의고사를 너무 자주 보아서’가 3.73, 교과과정에서는 ‘교양과목이 적어서’가 4.24, 과제물에서는 ‘레포트 분량이 너무 많아서’가 3.51, 공부환경에서는 ‘교실과 도서관이 냉난방이 안되어’가 3.6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강정희[9]의 연구에서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실과 도서관의 시설 개선, 통학버스 충전등 학교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존시설물의 재보수가 요구된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로 보이고 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적응방법은 전체 평균 2.85이며, 장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3.14, 단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2.55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적응방법 중 장기적 적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혜숙[12]의 연구에서는 단기대처방법 1.58보다는 장기대처방법 2.05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강정희[9]의 연구에서도 장기적응방법 1.91, 단기적응방법 1.63으로 나타났다. 조희[13]의 연구에서는 장기적응방법 1.33, 단기적응방법 0.98로 대부분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대처방법 사용이 응급구조과 학생들보다 저조 하였다.

김영선[14], 이인숙등[6]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다양한 대처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우울, 자살에 대한 생각이 유의하게 높은 것이 남학생보다 감성적이고 정동장애가 많은 성격 특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여학생만 있는 간호학과에 비해 남학생이 51.7%를 차지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적응방법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연구[15-17]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중심의 적응방법이 정서중심의 적응방법보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적응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금숙[1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정서 중심 적응방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서중심보다는 문제중심의 적응방법이 즉, 강정희[9]의 연구에서 단기적응방법보다 장기적 적응방법이 더 좋은 적응결과를 가져온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기적응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4.366, p=.040$ ). 성적이 2.5미만인 학생이 스트레스를 4.66점으로 가장 높게 받고 있었다( $F=2.527, p=.047$ ). 즉, 성적이 낮을수록 성적부진으로 인해 스스로의 열등감, 자신감이 부족해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방법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 $r=.619, p=.000$ )가 있었다. 이는 이기영[19]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수준이 높을수록 관련된 문제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적응방안을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이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시를 앞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이들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국시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유기적인 교육대책의 마련과, 학생들 스스로도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일부지역 대상자로 국한하였으며, 연구 표본의 크기가 작아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참고 문헌 중 국가고시 수험생을 위한 논문이 많지 않아 본 연구 도구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응급구조과 국가시험 중 실기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측정할 만한 도구를 만들지 못해 실기시험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사료된다. 또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부 문항에서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가고시를 앞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관계 조사 연구로 8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로는 교과과정 가장 높았으며 과제물, 공부환경, 시험, 취업순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3.36이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적응방법은 전체 평균 2.85이며, 장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3.14, 단기적 적응방법의 평균은 2.55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적응방법 중 장기적 적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 $t=4.366, p=.040$ )과 성적( $F=2.527, p=.047$ )이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실기시험과 이론시험의 병행으로 국시를 앞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재 파악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적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대상자를 전국 응급구조학과 수험생으로 확대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재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응급구조과 실기시험에 따른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3.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4. 스트레스 정도와 적응방법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619, p=.000$ )가 있었다.

## References

- [1] Selye, H,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 R. S. Lazarus(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2] He Ju Gang, "Comparison of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of Stress Among Athletic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eon Ju University a master's thesis, 2003
- [3] Chu, J. P., Min, B. I. and Park, S. G, "Perceived sources and coping methods of stress in a popul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Stress Research, 9(2), pp. 41-50, 2001.
- [4] Kuem Sun Han, Eun Young Park, Young Hee Park, Hee Su Lim, Eun Mi Lee, Leen Kim, Duck Sun Ahn, Hyun Cheol Kang, "Interpersonal Attachment Style, Emotional Regulation,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16, no. 12, pp. 198-204, 2007.
- [5] Eun Hee Lee,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9, no. 1, pp. 25-52, 2004.
- [6] Inn Sook Lee, Ju Yeon Cho, "Employment Stress,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2), pp. 745-758, 2011.
- [7] Sung Hawe Hwang, Joung Koo Park, "The Stress-Buffering Effect of Natural Environment on the Job-Seeking of the Students - Focused on Savanna Theory",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 24 no. 31, pp. 85-101, 2009.
- [8] Hyun Jung Choi, "On The Music Psychotherapy for Female Students under National Examination stres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9] Jung Hee Kang, "An Analysis Study on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during preparing Examination for Korea Registered Nurse licence", Kyung Bok College no. 5, pp. 537-555, 2001.
- [10] Young Heon Choi, "The Clinical Competence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 Chosun University a master's thesis, 1992.
- [11] Na Sun Ha, Kuem Sun Han, Jung Choi,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tress Respons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8 no. 2, pp. 358-368, 1998.
- [12] Hea Sook Park, "A Study on the Stressors, Perceived Stress Level, and Coping of the Nursing Students", Catholic Sangji College vol. 27, pp. 1-43, 1997.
- [13] Hee Jo, "Stressful events and Adapt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vol. 5, pp. 93-103, 1983.
- [14] Young Sun Kim,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Depression, Hopelessness on Suicide Ideation in th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4B), pp. 1907-1921, 2009.
- [15] Compas, B. E., Orosan, P. G. & Grant, K. E,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implicastion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pp. 331-349, 1993.
- [16] Ebata, A. T. & Moos, R. H,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pp. 33-54, 1991.
- [17] Patterson, J. M. & McCubbin, H. I., "Adolescent coping style and behaviors: conceptualiza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ce, 10, pp. 163-196, 1987.
- [18] Kuem Sook Jo, "Relation of perceived stress, coping,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psychiatric nurses", Korea University a master's thesis, 1997.
- [19] Ki young Lee, "The stress and coping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Ajou University a master's thesis, 2005.

---

### 정 지 연(Ji-Yeon Jung)

[정회원]



- 200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

### 윤 종 근(Jong-Geun Yun)

[정회원]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

### 오 진 환(Jin-hwan Oh)

[정회원]



- 2002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8월 ~ 현재 : 수원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